

원희룡 장관 “주거복지사 배치로 100여개 LH 영구임대단지 주거서비스 강화”

- 8일 영구임대단지 찾아 취약계층 밀착 돌봄 서비스 중요성 재차 강조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8일(수)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,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-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되었고,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”면서,
 - “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 “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”면서
 - “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, 철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적기 보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달라”고 당부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올해 111개 LH 영구임대단지에 이어 '24년부터는 지자체 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전담 배치를 확대하여,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2023. 11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